

2021 학부모용 카드뉴스

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한  
8가지 오해와 진실





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자녀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.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자녀들의 정신건강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.

이번 카드뉴스에는 정신질환을 둘러싼 **오해**와 정신질환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**올바른 정보**를 담아보았습니다.



# ‘정신질환’은 성격의 결함으로 생기는 병이다?



**정신질환(우울증, ADHD 등)은 아이의 성격에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.**

‘정신질환’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며, 보호자의 양육에 문제가 있거나 아이의 성격에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. 신체질환이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되지 않듯이 정신질환 역시 **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**하여 나타납니다.  
(유전적 요인, 기질적 요인, 심리적 스트레스, 환경적 요인)

## ‘정신질환’은 성인에서 흔하다?



성인 정신질환의 약 50%가  
14세 이전 에 발생한다고 합니다.

WHO에 따르면 소아청소년의 약 20%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 
성인 정신질환의 약 50%가 14세 이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.  
그만큼 인지, 정서, 행동 문제는 소아청소년에서 흔하고 자녀가  
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큰 어려움을 줍니다.

# ‘정신질환’의 경우 병원 치료는 최대한 늦추는 것이 좋다?



**빨리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 
빠른 회복**을 돕고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무슨 병이든 빨리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빠른 회복을 돕는 것처럼 자녀의 인지·정서·행동상에 문제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 정신건강 전문가의 정확한 평가와 상담을 거쳐 향후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
##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기록이 남아서 불이익을 받는다?



**부모님이나 가족이라 하더라도 성인이 된  
환자의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.**

의료법에 따르면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타인에게 환자의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. (만 14세 미만의 경우, 직계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) 또한 개인의 질병정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5년 보관하지만 이후 폐기되며 의무기록은 10년까지만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. 군입대나 취업시에도 군대나 회사가 개인의 동의 없이 **의료기록을 열람할 권리는 없습니다.**



##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다?



개인보험의 경우, 회사마다 약관이  
매우 다양합니다.

치료가 완료되어 3년이 지난 후 증상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회사마다 약관을 잘 살펴보세요.

##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면 약만 준다?



병원에 간다고 해서 무조건 약을  
처방받는 것은 **아닙니다.**

전문의가 진료를 통해 치료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단계적  
약물치료나 다양한 **비약물적 치료**(놀이치료, 가족치료, 특수교육,  
인지행동치료 등)를 단독 혹은 병행으로 처방합니다.



#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먹으면 몸(뇌)에 해롭다?



**적절한 약물 사용은 오히려 아이의 뇌가  
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**

정신건강의학과 약물은 여러 단계의 과학적인 연구 과정을 거쳐서 **안전성과 효과가 입증**되어야만 처방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아이의 성장과 발육에 해가 되거나 신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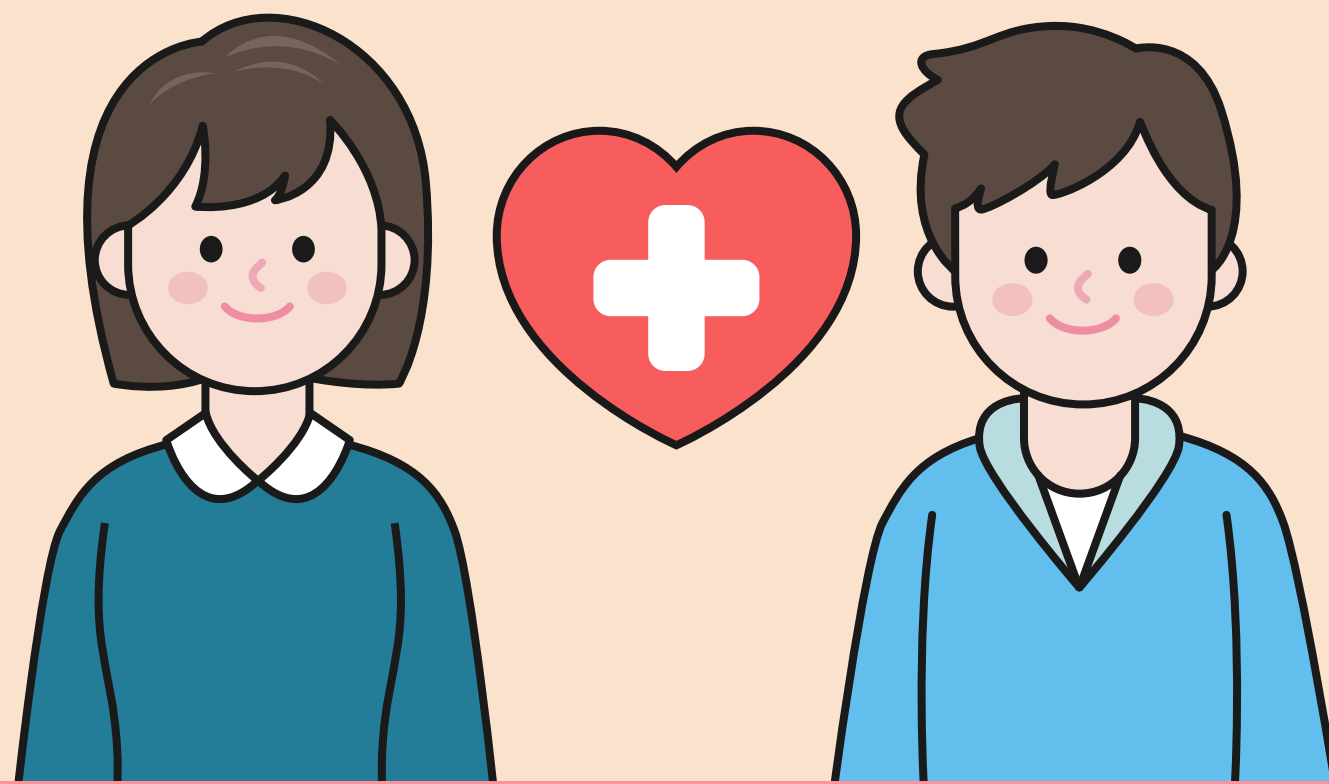
## 정신건강의학과 약은 중독된다?



**정신질환 치료가 다른 질환보다  
비교적 치료 기간이 길어 생긴 오해입니다.**

약물은 증상이 호전되면 전문의와 상담 후 약물을 감량하여 중단하면 됩니다.

아이가 마음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 
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오해의 문턱을 넘어  
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세요.



**카드뉴스 문의사항**

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

**02-6959-4640**



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